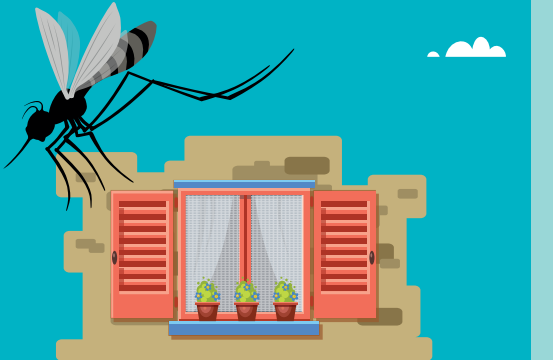


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어르신 예방 안내문



창문에는 방충망



집안에는 모기장



2020년 6월



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!



야간활동 자제

모기는 해질녘에서 새벽시간에 활동해요



밝은 색 긴 옷 착용

모기는 어두운 색을 좋아해요



야외 작업 후 샤워

땀은 모기를 유인해요



방충망 및 모기장 사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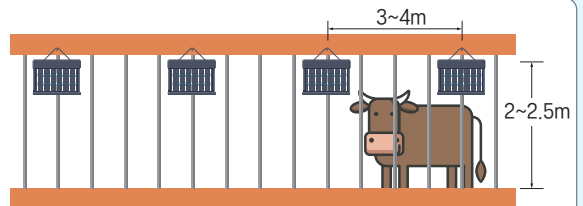


모기 기피제와 살충제 사용하기
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제품 사용

- 모기는 목장 또는 축사주변에 많이 모이므로 유문등을 설치하면 효과적입니다.

유문등은 1일밤
2천마리 이상
모기 채집



- 축사 인근의 물이 있는 곳이나, 관개수로 등에 모기유충이 주로 서식하니 자주 확인하고 필요시 보건소에 방제를 요청합니다.



의심증상 나타나면 즉시 병원가기

- 말라리아에 걸리면 수일 내 오한, 고열, 발한 등이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.
- 초기에는 권태감, 발열증상이 수일간 지속되고 두통, 구역, 설사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.
- 6~12개월의 장기 잠복기를 보이기도 하니, 최근 2년 이내 말라리아 발생지역 방문 후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.
- 말라리아는 신속진단검사로 15분만에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. (검사비용은 보험이 적용되어 일부만 본인이 부담함)



문의사항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

질병관리본부 콜센터